

修譜에 즈음하여

族譜에 관한 知識이 一般化되어 가면서 大部分의 人們들이 族譜의 概念을 알고 있다. 그러나 族譜 이야기를 하면 흔히들 封建的인 觀念과 混沌하기 일쑤이며 老人層이나 觀念을 갖는 것으로 잘못 생각하는 사람이 아직도 있다는 것은 祖上을 모르는 것이나 다를바가 없는 것이다.

흔히들 國史나 世界史는 먼저 배우면서 자기집의 系譜나 祖上이 지게 온 來歷에 對해서 는 나무等 閑視해 온 것도 事實이다. 그런데 近來에 와서 우리 것을 알고 내 것을 찾으면서 族譜를 意識하려는 일들이 오늘날처럼 提高되기도 없었지 않았던가 느껴진다. 族譜는 우리 韓民族만이 하는 것으로 말하는 사랑이 있으나 族譜에 관한 研究를 많이 하고 있는 美國사람들은 家系를 페밀리 트리 (Family tree = Pedigree) 라고 하나 즉 「家族의 나무」라는 뜻이다. 한 家族을 나무로 假想하여 나무 뿌리는 根源으로서 祖上을 말하는 것이고 여러 갈래의 가지(枝)는 分派 내지 支孫을 말하며 또 꽃(花)이나 잎사키(葉)

그 말은 子孫을 가리키고 있다. 참으로 우리나라의 花樹와 같 比喻된 말인 줄
안다. 일찌기 우리에게 家乘譜 또는 家牒이 傳해 내려오고 世譜가 엮여져
오고 있는데 自古로 族譜를 꾸미고 뒤음은 血統과 派系를 찾고 同宗間에 親和를
圖謀하자는데에 그 目的이 있는 것이다.

여러代를 내려오면서 宗派가 갈리고 一家를 서로 모르게 될때에도 그 友誼를 찾
는 길은 亦是 族譜가 가장 빠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예나 지금이나 族譜는 大概
가 宗孫이나 長子만이 모시었으므로 族譜를 모시지 못한 사람이 많으니 家乘譜
만이라도 作成하여 本人도 알고 子孫에게도 길이 물려줘야 할 것이다. 우리는
春秋節祀로서 先祖의 山所에 時祭를 지내는 일은 그것을 形式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一族이 한 자리에 모여 祖上을 推仰하는 美風良俗이라는 것을 생각
할때 이 얼마나 敬祖하면서 親和로운 일인가. 지금까지의 例로 各門中
別로 約二十年내지 三十年間隔을 두고 慣例적으로 族譜를 修譜刊行한 것
이나 今般 蔚陵君派譜歷을 考察하면 甲子年(一九二四)에 甲子譜가 創刊되
었고 戊戌(一九五八)에 再刊譜로 二次出刊되니 迄今二十七年的 歲月이 흘

왔으니 戊戌譜以後의 後孫問題를 整理하기 爲하여도 修譜가 不可避함으로 서
두르지 않음을 주 없는 것이나 이에 따라서 一九八一年十月二十五日에 蔚陵君 大
監의 祭祀 參祀次 모였던 慶北 安東 葛谷 서울 金浦等地의 支孫들과 도
修譜에 関하여 發議 拳論되었던 것이나 그런데 一部 支孫들 間에 是 貫鄉의
呼稱에 関하여 歪曲된 異見을 내세우게 되어 族譜 編纂의 實行이 不容되면
서 歲月만 흘러가는데 누구도 크게 関心을 갖는 사람이 없으니 이와 같은 狀
態로 遷延歲月되어 나가다 보면 오늘의 無関心과 怠慢이 곧 後代에게 미치
게 될 것이니 甞々치 못한 祖上이 되거나 不양을 가 매우 憂慮되는 바 있어 譜
者非爲一家作也 라는 옛 祖上의 뜻을 모르는 바가 아니라 本意가 아니면서
不得이 貫祖의 蔚陵君의 直系 後孫만이라도 派譜(家乘譜)를 定立하지 않
으면 아니 되겠기에 修譜 刊行을 議決 斷行한 것이다

今般나 是 修譜에 関心을 기우리게 되면서 彭城 林氏 大同譜를 爲始하여 各派譜
와 이에 関한 文獻等을 두루 살펴보고 논취하는 것이 望望하다

族譜라 한宗族의 系譜로서 父系를 中心으로 한 血緣關係를 알기爲기 體系的으로 나라하면 책을 말한 다 이는 말하자면 國家에 있어서의 史乘과 같은 것으로 祖上을 尊敬하고 家族의 團結을 圖謀하며 後孫으로 하여금 遠近을 不問하고 和睦의 美風을 일으키는데에 그 目的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吾派의 族譜를 詳考할 때 年代와 史蹟들이 史實과 相違된 點이 發見되어 앞으로 많은 研究가 必要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蔚陵君 祖上은 燦爛한 歷史의 創造者의 시며 後世에 垂訓이나 模範될 만한 事蹟들이 더 많았을 것으로 생각되나 當時의 政亂과 變亂으로 因하여 消滅된 點인지 記錄으로 傳해지지 못하고 漏落된 것이 많으니 매우 遺憾된 일이다 그리고 上系에서 諱仲以上 諱仲幹以下 間의 系代連結에서 疑問點을 느끼게 되고 이는 祖上들이 系譜에 等閑하여 記錄을 남겨주지 않았겠거나 戰亂으로 消失되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만약 祖上들이 記錄을 남겨주지 않았다면 이 얼마나 遺憾된 일이었는가 우리는 이러한 前轍을 밟아서는 아니 되겠기에 家乘譜서부터 記錄을 반드시 維持保存 되어야 하는 것이다

今般 安東의 支孫인

元洙

元洙 亦是 譜事에 많은

關心과 精誠을 기우려 오던 중 前述한 系代 模湖 部位의 系代를 是正 定立할 수
있之 確實한 資料를 探知하였음은 다 같이 반가운 일이며 따라서 앞으로
發刊하之 譜는 보다 內實化를 期하게 되었음은 우리 宗門의 光榮이 아닐
수 없다

이제 나之 格別히 族譜를 意識하게 되면서 現實에서 特別히 是正을 要하之
當面 問題矣 한가지를 指摘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까지 同一系派의 先祖
밑의 支孫들이 세삼스레 貫鄉에 關하여 曰可曰否 是々非々 論하之 異見은
早速히 調整이 되어야 할 것이라 오늘날 흔히 보고 듣는바에 依하면 婚談
을 交際할 때 家門을 돌보이게 한다는 口實云々하여 中始祖(貫祖) 때부터의
蔚珍貫을 除外시키고 林氏 鼻祖時의 本貫인 平澤(彭城)으로 溯及 還源
하여 呼稱하之는 것은 同一派한 祖上의 後孫들이면서 本貫을 各其 蔚珍
平澤으로 二分類함으로서 隱然中 同宗間에 疎遠之感과 違和感마저 招來
하게 된다는 現實을 보았을 때 이는 반드시 是正되어야 할 것으로 痛感하之

바이다

吾派系의 中祖이신 蔚城君 蔚陵君의 基石石에도 嚴然히 本貫이 蔚珍
이라고 彫刻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서도 이것은 尙疑無之 唯一한 考證인 것
이다 然故로 貫鄉을 오늘날 모든 林氏門中에서 分貫되어 내려온 由來대로 修
譜錄에 準據하든가 아니면 過去 全國 林氏大同宗親會에서의 議論에 따라
全國의 모든 林氏之 林氏鼻祖의 本貫인 平澤으로 還元함이 바람직하다는 夫
論에 좃아 還貫함이 無訪하다면 오늘날 모든 林氏가 平澤 林氏로
統一還元하는 實現이 無之限 마땅히 蔚珍 本貫의 子孫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 問題에 關하여는 自省 判斷을 期待하면서 說得과 理解를 促求함으로서 和
合 團結을 圖謀하는 데에 慎重을 期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면서 여기서 나는
우리 林氏의 始祖(本源) 및 本貫의 由來를 後代의 參考가 되기를 바라
면서 살펴보기로 한다 本貫은 貫鄉 또는 貫籍이라고도 하는데 始祖(先祖)의 出
身地나 始祖의 定着世居地를 보통 말한다 各姓氏의 氏族譜에 記錄 本貫의
淵源을 살펴보면 國家에 큰 功勳이 있어서 〇〇伯이나 〇〇君에 封해졌으므로

封君 받은 地名을 따라 後孫들이 本貫을 定한 家門이 있고 어느 地域의 始祖로 부터 累代를 살아 왔음으로 그 地名을 따라 後孫들이 本貫을 定한 집안도 있다 또한 先祖가 받은 榮華를 子孫들이 자랑스럽게 여기며 그 偉業을 繼承하고 自己의 姓과 本貫을 지킴으로서 다른 姓氏와 區別된 衿持를 갖는데 그 뜻이 있다 하겠다 그리고 어느 一門(部落)이 本貫을 지킴을 하고 있는데 내용인즉 그 地方에서 得勢한 緣由에 따라 部落名 또는 地名을 따서 本貫과 는 달리 부르는 경우도 있다 또한 一族一門이 蕃衍하여 同姓만으로는 同族을 區別하기 어렵기 때문에 本貫이 必要하게 되었던 것이다

以上과 같이 本貫의 由來에 関하여 詳述하였거니와 우리 林氏의 鼻祖인 신 學士公諱 八及께서 殷末 箕子 初에 唐나라로부터 東쪽 바다를 건너서 彭城(現京畿道 平澤의 古號)의 龍珠坊에 자리를 잡으시게므로 傳해져 내려오는데 於焉 三十有餘年 箕子 卅年 高麗 李朝 千年

에 걸쳐서 오직 한 분 學士公께서 비롯된 子孫이 繁昌하여 各歷朝史錄
에 先祖들의 이름이 赫々하다

오늘날 林氏는 全國十大姓의 하나가 될 말끔 繁盛한 것이다 同一貫에서도
始祖를 달리 하는 姓氏가 許多함에도 唯獨 우리 林氏만은 現存貫이 三十餘
本임에도 그 始祖를 本貫으로 하고 있으니 자랑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우리
에게도 얼마간의 問題가 있으니 鼻祖 學士公의 東來說이 區々함이
라 아니 할 수 없다 東方의 우리 林氏는 同根之孫이라 하면서도 新羅末東
來說 또는 新羅初說 殷本說 등으로 各其 다른 意見을 主張하게 되니 이에
關해서는 더욱 같은 研究課題가 아닐 수 없으며 하루 빨리 單一化된 全國 林
氏의 大同譜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마음 懇切하다

林氏 本貫의 由來에는 諱 八及 學士公이 彭城(現 平澤)의 龍珠坊에
世居하였으므로 後孫들이 本貫을 平澤이라 하였으며 確實한 考證이
없이 世系를 갖추지 못하여 그의 後孫을 中祖로 하여 起一世承襲하
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後孫들이 繁衍함에 따라 世居地名 또는 勲爵

封君을 受封함으로서 本貫은 다시 다르게 始作이 되면서 分籍하였으니
宗派인 平澤林氏는 世春 兆陽林氏는 世味 善山林氏는 良貯 恩津林氏는
成槿 檜城林氏는 箕美 長興林氏는 黃(昱) 鎮川林氏는 曦(翊) 沃溝林氏
는 槩(介) 益山林氏는 克 蔚珍林氏는 祐 醴泉林氏는 椿 扶安林氏는 淑
淳昌林氏는 仲允등을 各々一世祖로 하여 分籍하였고 後期에 와서 醴泉林
氏에서 分籍된 慶州林氏(一世祖 繼貞) 襄陽林氏(自蕃) 密陽林氏(繼宗)
安義林氏(大樑) 등이다. 이 밖에도 兆陽林氏에서 分籍된 林川林氏 臨陂林氏
全州林氏 寶城林氏 安東林氏 臨下林氏 등이 있으나 祖上의 뿌리를 찾는다
고 하면 諱八及(學士公)의 凡一同祖之孫임을 말하게 되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林氏家들의 本貫의 由來를 概略 羅列하였으나 여기서
먼저 알아 두어야 할 것은 前述한 蔚珍林氏 諱祐의 分籍은 麗朝末에
蔚陵君을 受封하신 系派를 가르켜 말하는 것이다.

世系圖를 보면 夢周(忠宣公)의 아들인 季美에서 元一 厚一 彦을 거

利幹 仲幹으로 이어졌는데 仲幹의 孫子 이시고 宗庇의 아들임이신
諱祐(忠敬公)가 蔚陵君에 封해졌으므로 蔚珍貫으로 分籍한 것이니
알아야 한다. 그런데 分明해야 할 것은 吾派系에서 또 한분이 宣祖二
十五年 壬辰倭亂이 勃發하던 때(一五九二年 四月三十日) 宣祖王을 扈駕
하신 扈聖功臣이시며 宣祖三十八年(乙巳) 西紀一六〇五年에 加陞崇祿大
夫 蔚陵君을 受封하셨는데 公고름게도 이 이름도 亦是 諱祐이시었으
니 吾派는 바로 이 할아버지를 起一世로 하여 蔚陵君派로서의 亦是 蔚珍
貫으로 吾貫이 된 緣由인 것으로 짐작이 된다. 이와 같이 麗朝末인 至今
으로부터 七百年前의 蔚陵君과 宣祖朝인 三百九十餘年前의 蔚陵
君으로 두분이 있었는데 諱마저도 같은 祐로 同姓同本同名이면서 異人으로
重復된 것이니 詳考來歷을 모르고서는 錯覺 또는 混屯하기 쉬운 것이다.
흔히 있는 일로서 上系代에서 어느 祖上이 君爵을 受封하였을 때 後代
孫에 가서 亦是 같은 名稱의 君을 받는 일은 恒例로 되어 있는 것이다.

다만 諱마저 같았다는 것이 좀 어색한 感이 있는 것이나 이와 같은
現象은 오늘날에도 寸數가 멀지도 않은 一家中에서 같은 이름이 重復
되고 있는 것을 볼 때 이것은 族譜에 無關心했다는 證左이기도 할 것이
다 앞으로는 이와 같은 同名異人이 나오지 않도록 族譜와 連關하여
作名에 關心을 갖은 것이 바람직한 일이다

不遠問 蔚珍林氏 蔚陵君派의 完全無欠한 族譜刊行을 期待하면서
于先이 家譜의 修譜를 契機로 猥濫되게 所懷의 一段을 叙述해서
니와 이제 우리 後孫들이 爲先宗祖思想을 배워야 할 일은 너무나
많은 것이다 祠堂과 齋室의 重修 宗家宅의 繼代設定 墓域의 整
備等은 後孫들이 함께 誠心誠意를 傾注함으로써 先祖의 遺德을 기
리며 나아가 宗親間 敦睦을 두터히 하여 後孫들이 無窮한 繁榮의
바탕이 되기를 바라면서 頭緒없이 人事의 말로서 가름하는 바 이
다

一九八五年（乙丑）七月

日

蔚珍林蔚陵君十四世孫

在先謹序

仲

世宗三十年戊辰生

贈通政大夫掌肆院判決事

配淑夫人金海金

氏。墓奉化飛

津村戶長谷壬坐合窆

子淑連

成宗五年甲午生

成宗朝生員南平縣監

贈嘉善大夫漢城府尹

配貞夫人沃川全

氏。墓奉化郡

朔湖面飛津豐樂山智坊谷亥坐合兆

子鐵

中宗二十七年壬辰正月初六日生

生

贈純忠補作功臣

崇祿大夫判敦寧府事

蔚曆三十三年封蔚城君丁未八月五日卒

配貞敬夫人金海

金氏癸巳十月八日生壬寅九月八日卒。墓

飛津洞玉冠硯

癸坐合兆賜碑出八道誌

子祐

字德應 明宗十七年壬戌九月十五日生

宣朝壬辰亂鷹駕

龍灣癸巳與白沙李恒福侍大

駕至平安道中

卒二十四日至安州二十五日

至龍泉縣龍泉

客舍有絕句二首壬辰八月二十四日上疏於

大駕前疏草在

郭志憂堂家畫

像在嵩陽香洞

宗宅家廟焉

西厓柳先生與

公同若晋州兵營自朝家銀五百兩恩衣一襲賞賜晋州蠹石樓與志憂堂有吟詩四韻後受

子禮孫

宣祖十一年戊寅七月二十二日生

生

贈資憲大夫禮曹

判書兼義禁府

事壬辰與于應

順應誠扈大駕

萬曆受錄券丙戌四月七日卒

配貞敬夫人安東

金氏。墓奉化

戶長洞縫葬出

八道誌

道誌

山下良坐出八道誌

子應順

子應誠

子應根

子應龍

子應柱

鐵山郡守

禮部正郎

文科翰林

文料翰林

鐵山郡守

鐵山郡守

鐵山郡守

鐵山郡守

鐵山郡守